

LG-Nikko동제련, 11개 협력기업과 상생협약

LS-Nikko동제련 김명한 공장장과 사내 협력기업인 선우를 비롯한 11개 협력기업 대표는 7월15일 LS-Nikko 동제련 대회의실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주관으로 모기업-협력기업간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식> 을 가졌다.

협약은 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과 모기업인 LS-Nikko동제련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기업에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해주고 교육과 기술지원 등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기간 모기업인 LS-Nikko동제련은 협력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기업은 자율적인 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은 모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은 물론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기술지도와 함께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규 울산지도원장은 “울산지역의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안전에 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며 “모기업-협력기업의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모기업의 안전 노하우를 협력기업에 전수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이 자리잡는다면 울산지역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7/15>